

# 서남해 오염사고 줄었는데 유출량 늘어

### 장마철 부주의 축산 폐기물 6.1㎏ 흘러 해양오염 상반기 12건에 7.6㎏ 유출 ... 목포해경 단속 강화

올 상반기에 서남해지역 해양 오염 사고 발생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유출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령)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전남 서해안지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총 12건(유출량 7.6㎏)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3건이 감소했으나, 유출량은 6.3㎏이량 증가했다.

유출량 증가요인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축산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장마철에 부주의에 의해 흘러 넘쳐 적발

된 경우가 2건으로서 6.1㎏이 유출됐다.

또 어선에 의한 기름유출이 3건, 0.61㎏이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 유출량보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 하반기에 해양사고가 빈발한다”며 “앞으로 선박 및 해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및 홍보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해경 방제정이 지난 2월 영암 대불항내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 상반기 서남해 해양오염사고는 지난해보다 25% 감소했다. <목포해경 제공>

# 합평 불량 유기질 비료도 보조금 주기로

### 보조기준 원칙 미흡... 제품 검정 방안 강구돼야

합평군은 최근 말뚝이 일었던 성분 미달 유기질비료(광주일보 7월 12일 10면)에 대해 군 보조금을 집행해주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품질 좋은 유기질비료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 공동 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합평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질의한 결과 “위반업체가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해진 주성분(유기물 등) 함유량이 1% 이상 10%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16조 2항 관

련)에서 경고(유기질비료 등)에 해당돼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농림부는 “다만 동일 위반사항(1~10% 미만)에 대해 2차 위반인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업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매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보조사업 기준과 원칙이 미흡해 업체들이 난립해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은 성분 미달된 제품이

선정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공급되는 데다 대부분 농가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

또 행정에서도 예산이 소모돼 시료 채취 검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질의 유기질 비료공급을 위해서는 일선 시·군이 공동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시기에 맞춰 시료채취 등을 통해 검정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농민 A씨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행정의 원칙이 무시돼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공급되면 농가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 해남 한우농가 대상 인공수정 기술 교육

해남군과 해남진도 축협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한우사육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인공수정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박철호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한우사육 농가가 직접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우농가 A씨는 “이번 교육으로 한우번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공수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며 “축산농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민선 5기 1년

김종식 완도군수

# “해양테크노 폴리스 만들 것”

“해양테크노 폴리스 완도건설”을 목표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메니페스트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 완도군의 ‘가고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개발’ 공약사항이 추진방식의 창의성·혁신성·미래지향성이 뛰어난 사례로 평가받았다. 민선 3·4기 공약사항중 극히 일부인 사업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100%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수는 민선5기 1주년 성과로 활력이 넘치고 미래 완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주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양생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다.

국도 13호선 확장·포장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5월 군외면 불복~원동 구간이 개통됐다. 장보고 대교인 신지~고급 연륙교와 노화~소안 연륙교가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등 투자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가시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을 불어넣어 간다는 방침이다.

김 군수는 완도만이 갖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 차별화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긴 축계인 ‘청산도 슬로 걷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는 등 국제 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세계 슬로 길 1호’ 청산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그동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조성된 5대 명품공원과 문화예술의 전당 등을 통해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행복마을 조성 등을 통해 도서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교통·교육·식수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비교우위의 해양자원을 통해 해양생물,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해양물류의 중심지인 ‘해양 테크노폴리스 완도 건설’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단체장 공약이행 최우수

슬로 길 세계 관광명소로

해양생물 산업 집중 육성

또 해양생물 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난 4월에는 포화상태에 이른 죽청 농공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 내년도 해양생물산업단지로 선정돼 국비지원과 함께 해양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전북주식회사 증자를 통한 경영 활성화와 전북연구소 설립·운영, 전북 세계 일류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

# 전 북

# 군산~제주 1시간 50분

# ‘바다를 나는 배’

# 50인승 위그선 9월 취항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50인승 위그선(Wing In Ground Craft·수면비행선박)이 세계 최초로 건조돼 오는 9월께 취항할 전망이다.

군산 군장 산업단지에 있는 원실중공업(주)은 최근 군산 1공장에서 50인승 중형 상용 위그선인 ‘WSH-500’의 건조를 마쳤다. 지난 2009년 4월에 건조에 들어간 지 2년4개월 만이다.

그동안 8인승 이하 소형 위그선을 독일과 러시아, 중국 등에서 개발한 사례는 있지만 50인승 이상의 중형급 상용 위그선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 위그선은 순항속도 시속 180km로 군산에서 제주까지 1시간5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체 길이가 29m, 폭은 27m인 위그선은 해수에 강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졌다. 선박용 디젤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터보프롭 엔진 2기

를 장착하고 있다.

원실중공업은 시험 운전과 최종 안전인증을 거쳐 위그선을 국내 해운업체인 ㈜오션익스프레스에 인도할 계획이다.

오션익스프레스는 이미 지난 2월에 군산(비응항)-제주(애월항) 간 위그선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이 위그선을 오는 9월 말부터 군산~제주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1~5m가량 떠서 시속 180~250km의 속도로 달리는 ‘해상 KTX’로 불리는데, 일반 고속 여객선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새로운 여객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위그선을 이용하면 국내 모든 섬과 육지를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1~3시간이면 여행할 수 있다.

연협뉴스



군산 원실중공업(주)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50인승 중형 위그선.

# 새만금 1호 방조제 22일 개통

### 부안~가령도 구간... 관광객들에 전면 개방 검토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 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2일 1호 방조제 구간에서 개통식이 열린다.

새만금사업단은 “부안~가령도 구간 1호 방조제에서 진행되어온 도로높임 공사가 완료돼 22일 오후 2시 1호 방조제 현장에서 개통식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7일 개통한 새만금방조제는 그동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 등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한적으로 개방됐었다.

1호 방조제 개통과 함께 24시간 전면 개방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사업단은 개통과 함께 방조제를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방조제가 임시도로여서 사고가 발생하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개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개통식을 한 뒤 2~3일 상황을 지켜본 뒤 24시간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가급적이면 전면 개방을 해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방조제를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 야미도~신시도 구간 다기능부지에 오토바이 체임프장과 오토캠핑장, 수상레포츠 시설도 이달 말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여름 피서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군산시 상반기 稅收 622억 ... 작년보다 30% 증가

군산시의 세수입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잇따른 기업유치에 힘입어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수(稅收)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증가한 62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7억 원에 비해 145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추세로 볼 때 올 한해 세수는 1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년도의 1153억 원보다 197억 원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역시 세수증가의 주된 요인은 기업유치에 있다.

지난 2006년부터 군산으로 이전한 기업이 400여 개에 달하는 데다 수년전 입주한 현대중공업과 OCI,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법인의 지방소속세 신고액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전주 밴드음악 한무대에

전주시가 배출한 유명 밴드가 한 무대에 오른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22~24일 여는 ‘메이드 인 전주: THE BAND’는 전주를 연고로 한 유명 밴드가 중심에 서고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밴드들이 뒤를 받치며 흥을 돋우는 자리다.

첫날 공연에는 감성적인 록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 ‘바닐라 유니티(Vanilla Unity)’와 전자적 사운드와 록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피아(PIA)’가 젊고 열광적인 무대를 만든다.

23일에는 록과 힙합, 일렉트로닉까지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는 밴드 ‘나인일월스’와 사랑의 향기를 노래하고자 하는 혼

성 밴드 ‘휴먼스’,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인디 밴드 ‘Crym(크림)’ 등 6개 팀이 무대를 달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정통 록밴드의 탄탄한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비겐 후’와 여성 보컬 록그룹의 계보를 잇는 실력과 밴드 ‘게스라 이밴드’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바닐라 유니티’ 등 6개팀 22~24일 ‘소리의 전당’서

성 밴드 ‘휴먼스’,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인디 밴드 ‘Crym(크림)’ 등 6개 팀이 무대를 달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정통 록밴드의 탄탄한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비겐 후’와 여성 보컬 록그룹의 계보를 잇는 실력과 밴드 ‘게스라 이밴드’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뉴스 브리핑

## ‘창업 도우미’ 소상공인 희망센터 개소

소상공인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돕기 위한 ‘전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가 13일 문을 열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옛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 개원했으며 전북경제

통상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이 센터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예비 창업자와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공간과 사무실 집기 등을 저렴하게 빌려주고 경영에 필요한 금융이나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정읍 칠보 물 테마 유원지 20일 개장

목정호와 동진강의 청정 수자원을 활용해 만든 ‘정읍 칠보물 테마 유원지’가 오는 20일 개장된다. 다음달 28일까지 운영되는 칠보 물 테마 유원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칠보면 무성리에 위치한 물 테마 유원지는 물레마 전시관(975

m)을 비롯해 ▲수생식물원(2013m) ▲유상대(792m) ▲인공폭포(207m) ▲분수대(115m) ▲야생화 관찰원(4192m) ▲물놀이장(2068m)을 갖추고 있다. 또 워터 하이슬라이드, 워터 드롭, 워터 터널, 워터 바스켓, 워터 스프레이 등의 놀이기구가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탄소 포인트제 운영

김제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포인트제’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일반·공동주택 등 938세대에서 총464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소나무 8954그루를 식재한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난 11일부터 ‘김제시 사람상품권 1337만원을 읍·면·동 이동장을 통해 참여세대에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1670점 당 김제시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 농업법인회사 순창 장류 새 대표 이사 모집

순창 전통 장류산업 발전과 안정적 농산물 소비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가 증가와 함께 역량이 있는 신입 대표이사를 모집한다.

9500만원으로 이미 7억9400만원을 유치 88%를 달성했으며, 나머지 1억100만원이 새로운 주주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이사 공개모집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